

# 기독교와 이문영 행정학: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Christianity and Moon-Young Lee's Public Administration: With the Understanding of Reformation)

김문기 (Moonkee Kim)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  
moonkee@ptu.ac.kr

## Abstract

*Moon-Young Lee is a layman, not a theologian or pastor, who practiced and influenced Christian values and worldview during his academic journey. His impact has been felt for 130 years in Korean Christianity. Moon-Young Lee declares that the founda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95 Theses of Martin Luther in his book 'Human, Religion, State'. He also interprets the 95 Theses in sections of "Methods, Work and People". In relation to "Methods", Articles 1-7 and 92-95 explain repentance in its entirety. These articles show how man should live throughout his life. The section about "Work" is classified in an ethereal world (articles 8-55). These articles teach that the work of man is to pursue God's justice not "profit" symbolized by purchase of indulgences. The section about "People" is described in articles 56-91 and states that man is a being standing before God (coram Deo) not before priests or the church. Moon-Young Lee's motive for joining public administration with Christianity is his childhood motto of: "I will study hard for my country from now on, but within the scope of Christianity." For him, the 95 Theses of Martin Luther show the origin of and the foundation of three courses of action for public servants with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1. 서론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지만 한국기독교 130 년의 역사에서 기독교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사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 이문영일 것이다. 이문영의 학문과 삶은 기독교의 틀 안에서 시작되었고 자랐으며 열매를 맺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실로 이문영은 옥토에 떨어진 씨였으며 100 배 이상의 열매를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았고, 예수의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였다. 필자는 이문영을 1970 년대에 무교동교회(현 중앙성결교회)에서 만나서 소천할 때까지 30 여 년 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사귀어 가지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그에게서 받았다. 그는 목사 이상으로 성경에 해박했고, 깨끗했으며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 온 몸으로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가 젊었을 때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몸을 바쳤다면, 교수에서 은퇴 후에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문영은 신학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전문가적인 조예가 있었으며 이것을 삶에 적용하였다. 이문영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저술하고 행동한 것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문영과 성경해석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문영의 해법에 귀를 기울이면 좀더 건강한 교회, 건전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점에서 한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학생에서 원로장로로 은퇴할 때 까지 그리고 기독교 교수로서 이문영이 한국교회에 남긴 족적은 하나님에 한국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2. 기독교와 이문영의 만남

이문영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기독교입문에 관하여 먼저 적는다.

### 2.1 시작에 대한 회상

1997 년 4 월 13 일에 이문영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갔던 무교동교회(현 중앙성결교회)에서 원로장로<sup>1</sup> 추대식 때 했던 인사말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의 시작과 끝에 변함없음을 고백한 내용이었다. 그는 서두에서 원로장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장로로 장립한 1974 년 전후를 돌이켜 본다. 그는 5 살 때부터 지금 원로장로가 된 70 세까지 중앙성결교회 교인이었다. 그는 장로장립 전에 무교동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가 없었을 4 가지를 말한다.<sup>2</sup>

첫째, 병에서 살아남은 기쁨이다. 초등학교 때 성홍열, 말라리아, 이질을 연달아 앓았는데, 초등학교 2 학년 때에 3 개월을 앓은 성홍열은 그에게 많은 것을 경험케 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자신을 이불 속에서 꼭

<sup>1</sup> 교회에서 '원로장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장로로 20 년 이상 흠없이 근무 시무한 자로 당회(목사와 장로로 구성된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sup>2</sup> 김문기, 『중앙교회 90 년사』 서울, 도서출판 청파, 1998, 468.

잡고 열심히 기도한 박기반 전도사(배선표 목사의 부인)의 기도소리와 숨결과 입김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상한 이분이 전염병 격리 수용병원인 순화병원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기를 막 야단을 쳤다.

배선표 목사는 북악산 북풍을 안고 추운 가을날 새벽에 곧잘 가난한 집 아이인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심방을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

둘째, 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윤관석 장로의 아동부흥회 때, 자기가 가정에서 동생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을 뉘우치며 많이 울었다. 또한 자신이 30 대에 고려대 교수로 취임한 후, 한 백일을 새벽기도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울었다. 이때에 이 사회의 기독교자인 자신이 애송한 구절은 로마서 1 장에 열거된 인간의 죄들이었다.

셋째, 자신의 신앙에 밀거름이 된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대했던 곳이 무교동교회이다. 딸 많은 집에 아들 낳기를 기도한 김순영 전도사,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경상도 할머니, 이웃집 아이인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김우진 할머니, 전기공업학교 학생인 주일학교 선생님, 은 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셨던 김사라 집사, 은행 대부업무에서 부정에 관여 않고자 자신에게까지 의논하며 양심을 지켰던 유병수 장로, 고모, 어머니, 할머니 등이 모두 이때의 분들이다.

넷째, 어린 마음에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 시달리는 조선 사람을 위하여 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기독교 학교인 배재중학교 1 학년 때에 그 후의 자신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 결심을 했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학교 예배 때 고평하는 한국말에서 영감을 받은 일이다. 그 당시는 국어 상용이라고 일본 말만이 학교교육에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일본말 속에서 듣는 조선말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되, 기독교의 틀 안에서 나라를 위하여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하게 하였다.

이문영은 원로장로가 된 이때에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나라사랑, 공부 그리고 기독교가 자신의 일생을 지배해 온 3 대 요소였음을 고백하였다.

그가 장로로 장립 받은 해가 1974 년인데 1 년 전인 1973 년 여름에 이미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고려대에서 한 차례 해직을 당했었고, 한 학기의 해직 후, 마침 복직 중일 때에 장로장립을 받았다. 김재준 목사가 주관하는 『제 3 일』 지의 동인지 활동,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이사장, 한국기독교자수협의회 회장, 갈릴리교회의 6 인 설교자 중 1 인이 그의 범 기독교 활동이었다. 이 결과 1974 년부터 1984 년까지 약 10 년간의 해직과 3 회에 걸치는 5 년간의 옥고를 겪었다.<sup>3</sup>

그의 공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인 비참한 조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조적 공산체제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박사논문으로 북한권력의 변이를 예측했고, 일본 식민지에서 시달리는 조선 백성, 김일성 밑에서의 북한 사람들, 유신체제 아래의 우리 겨레 등에 이어 그의 연민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더 열거하면 노동자, 전라도 사람들이다.

그가 만 70 세가 된 오늘의 시점에서 살아남은 기쁨, 회개, 소박한 생활, 약자의 고통에의 동참을 생각할 때에 느끼는 마음은 루터의 95 개조항의 제 95 항에 있는 것과 같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회개의 의무를 다해야 할 나이란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召命), 기독교인 지식인의 길임을 고백한다. 1991 년에 쓴 『자전적 행정학』, 1996 년에 쓴 『논어·맹자와 행정학』은 자신의 공부와 기독교와 나라 사랑을 섞어서 엮은 책들이며, 지금 쓰고 있는 책 『인간·종교·국가』도 전도지를 쓰는 마음으로 쓰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다만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책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적은 『자서전』 이기를 원한다.

그의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은 한반도의 오늘의 정치 현실과 정의가 사라진 대학과 약에 대한 저항을 외면하는 교회였다. 東이 西를 흡수하며, 남쪽은 북쪽을 흡수하는 잔인한 투쟁이 있으며, 자비니 어질 仁이니 사랑이니의 성현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오늘의 정치의 장이다. 자신이 일생을 몸담았던 모 대학교가 전두환 시대 때에 악역을 한 사람들을 서슴치 않고 그 학교의 최고지위인 석좌교수로 모시고 있다. 또한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과 권세 잡은 자의 악에 저항하는 것을 아무래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책과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돌보이게 할 것임을 희망한다. 특별히 자신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신을 격려하시고 너그러이 은총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sup>4</sup>

이 인사말 안에 이문영의 신앙과 학문의 길이 축약되어 있으며, 교회의 마지막 봉사적인 원로장로가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시작을 다시 되새기고 있다.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며,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회개하는 것이다. 이문영의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을 인간의 본연의 과제로 삼은 루터의 신앙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

## 2.2 이문영의 기독교 입문

이문영은 소위 ‘모태 신앙’인이다. 이문영이 접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와 그가 어렸을 때 다녔던 무교동교회의 담임목사인 배선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문영의 모친 서용란(徐用蘭, 1896-1987)은 1896 년 8 월 3 일 군인인 아버지 서정구와 어머니 이씨(이름 미상) 사이에서 서울 인왕산 아래 채부리(채부동)에서 태어났다. 서용란은 군인 출신인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유족하게 생활했고 일찍이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고 소학교에서 진학하여 신식교육도 받았다.<sup>5</sup> 당시는 조기혼인이 보편적이어서 서용란은 집안에서 정해준 대로 18 세가 되던 해인 1914 년에 이용사(李用史)와 결혼하였다. 이용사는 당시 보성전문학교에 다니고

<sup>4</sup> *Ibid.*, 470f.

<sup>5</sup> 박용석, “청교도의 삶을 실천한 신여성 서용란”, 『성결교회인물전』 제 10 집, 서울, 도서출판 두루, 2006, 369.

<sup>3</sup> *Ibid.*, 469.

있었다.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이용사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데리고 충북 음성으로 이주하여 서양인이 경영하는 재봉틀 회사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게 되자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은 충청남도 직산의 양대마을 금광의 기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서용란은 당시 소학교 교사였던 임영신(중앙대학교 설립자)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우로 친분을 맺게 되었다.<sup>6</sup>

서용란이 기독교에 입문한 것은 결혼하고서 이다. 당시 시택은 개화의 첨단을 걷고 있었는데 서용란은 예수를 믿는 시어머니의 인품에 감동되어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였다.<sup>7</sup> 이문영의 가문에 처음 예수를 접한 사람이 바로 이문영의 조모 권정원이다. 권정원은 남편이 작고한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종교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문영은 명주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할머니 옆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술회하였다. 할머니는 매우 신심이 깊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이였다.<sup>8</sup> 서용란은 직산 양대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학교 교사인 임영신과 믿음 안에서 친구로서 가깝게 사귀었고 각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sup>9</sup>

1919년 2월 하순 경에 함태영은 독립선언서 한 장을 직산에 있는 임영신에게 비밀 연락원을 통해 전해주면서 전주 기전여학교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임영신은 서용란에게 독립선언서 등사를 부탁하게 되었고, 서용란과 이용사는 다음 밤을 지새우면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한 자루가 넘는 독립선언서를 임영신에게 건네주었다. 임영신은 독립선언서를 가득 넣은 무명 자루를 치마 속에 차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허가 끊어질지언정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이용사 선생님은 어려움이 없도록 할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sup>10</sup>

독립만세 거사일이 되자 서용란은 양대마을에서 소학교 여선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며 만세를 불렀고 남편 이용사는 그의 형과 함께 독립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다. 남편은 몸을 피해 숨었지만, 서용란은 잡혀 들어갔으나 젖먹이 아이의 어머니였기에 먼저 풀려 나왔다.<sup>11</sup>

이용사는 민족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형사가 찾아와서 “왜 당신만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티느냐?”고 호통 치자 “어디 우리나라 법에 창씨개명을 하라는 것이 있느냐? 나는 절대 창씨 안 한다.”고 굽힘이 없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창씨개명하지 않은 집이 이문영의 집이었다.<sup>12</sup>

소년 이문영에게 기독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무교동교회의 배선표 목사와 만남이었다. 무교동교회는 성결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1907년 한국인 두 전도자인 정빈·김상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문영은 세종로로 이사하면서 다섯 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

배선표 목사는 1887년 9월 17일 서울에서 소금 거상인 배도석의 5대 독자로 태어났다. 그가 16세 되던 해 급환으로 부친의 사망하자 교회에 나가 점차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sup>13</sup> 배선표는 1908년 4월 그를 지도한 당시 YMCA 총무

김정식(金貞植)과 친구 유영모(柳永模), 구자옥(具滋玉), 박용희(朴容羲) 등의 격려를 받으며 장차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났다. 그는 神戶에 있는 關西學院 신학부에 입학하였다. 1년 후 다시 동경으로 옮겨 동양선교회의 동경성서학원의 학생이 되었다.<sup>14</sup>

그 당시 서울 연동교회는 묘동(廟洞)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911년 6월 묘동교회<sup>15</sup>의 중심 인물인 이원공(李源兢) 장로는 동경으로 급히 연락하여 배선표를 전도사로 청빙하였다. 배선표는 1911년 10월 박기반과 결혼했고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여 복음전도관으로 교적을 옮기게 된다.<sup>16</sup> 배선표는 1913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였는데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한 것을 인정받아 1914년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였다.<sup>17</sup>

배선표 전도사는 1930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제 2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sup>18</sup> 바로 얼마 안 있어 무교동교회의 주임으로 부임한 것이다.<sup>19</sup> 中央聖潔敎會고 김옥성(金玉成) 원로장로에 의하면 배선표 목사는 언변이 없는 분이였지만 기도하는 목사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한 목사였다. 그는 진정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목회자였다고 한다.<sup>20</sup> 또한 이문영(李文永)은 그의 『논어맹자와 행정학』에서 배선표 목사에 대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집 육남매 모두가 성홍열이라는 전염병을 앓은 적이 있다. 이 병으로 하루에 세 명이 죽었고 세 명이 순화병원이라는 곳에 3개월 간 입원을 했다. 이때에 새벽이면 곧잘 배선표 목사님이 문병을 오셨다. 나는 이것이 고마웠다. 내 집은 가난한 집이어서 문병을 오셔도 변변하게 대접도 하지 못하는 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앓는 전염병의 병균을 그 땀에 옮겨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와 주셨다. 어린아이라고 뭘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예배 때에 보면 배 목사님은 공공거리며 말씀하시는 놀변가 이시다. 키는 후리후리하게 컸고 눈도 크셨지만 얼굴이 곰보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추남이시다. 나는 이분을 존경했고 이분을 보고는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해 왔다.

<sup>13</sup> 100회 생신. 배선표 목사, 박기반 전도사 기념예배 팸플릿, 1987년 9월 20일, 대한기독교 나사 렛성결회 전동동교회 발행.

<sup>14</sup> 이용호, 『한국성결교회사』 제 2권, 426.

<sup>15</sup> 고춘섭 편저, 『연동교회 90년사』, 1984, 85-86: 1910년 7월 소위 양반 일과 백여 명의 교인들이 연동교회에서 분리하여 묘동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의 묘동(妙洞)교회의 시작이다.

<sup>16</sup> Ibid.

<sup>17</sup> 이용호, 『한국성결교회사』 제 2권, 426.

<sup>18</sup> 『활천』 (1930년 4월), 페이지 없음(표지 다음의 5번째 페이지의 사진).

<sup>19</sup>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 성결교회제 2회연회임명기”, 『활천』 (1930년 4월), 59.

<sup>20</sup> 김옥성 장로와 대담, 1996년 9월 21일 김옥성 장로 자택.

<sup>6</sup> Ibid., 370.

<sup>7</sup> Ibid., 370f.

<sup>8</sup> 이문영, 『집많은 자의 용기』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8.

<sup>9</sup> Ibid., 371.

<sup>10</sup> Ibid., 371-72.

<sup>11</sup> Ibid., 372.

<sup>12</sup> 박용석, 372f.

이러한 내 존경심은 사실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이름을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선표라고 지었다.<sup>21</sup>

배선표 목사는 신공덕리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할 때인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검거되었다.<sup>22</sup> 이문영이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의연히 산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부모와 배선표 목사의 영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 3. 루터의 95개조에 대한 전이해

이문영은 그의 저서 『인간·종교·국가』의 부제를 ‘미국행정, 청교도정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라고 하였다. 루터의 95개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고 세계 역사의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 이 책에서 이문영은 미국과 미국 행정학의 원모습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에 연유된 것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행정의 원모습의 준거가 바로 루터의 95개조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이문영은 첫째, 미국의 두 가지 얼굴을 설명하고, 둘째, 왜 미국행정의 뿌리를 루터의 95개조에서 찾는지, 셋째,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준거가 된 인물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검토하고, 넷째, 루터의 95개조 분석, 마지막으로 루터가 개혁하려고 한 교회의 개혁이 어떻게 세속행정의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혔다.<sup>23</sup>

이러한 연구에 대한 전이해를 위해서는 필자는 몇 가지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나오게 되기까지 루터의 생애와 당시 95개조 논제의 요인이 되게 한 ‘사면부’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전이해 다음에 이문영이 이해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 3.1 ‘95개조’ 발표 이전까지 루터의 생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레테(Margarete Luther, geb. Lindemann) 사이에서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다. 한스는 광부였는데 성실히 일하여 야금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한스와 마가레테는 마르틴이 공부에 소질이 있음을 알고 교육을 시켰으며, 장차 법관이 되길 원했다. 그리하여 루터는 1501년 4월 에어푸르트(Erfurt)대학 입학하여 1502년 가을에 문학사 학위를, 1505년 1월 7일에는 문학석사 학위를 받고, 1505년 5월 20일부터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에어푸르트 대학에서는 초기 인문주의와 스콜라적인 교수법이 공존하였는데 그는 이곳에서 옥감주의(Occamismus via moderna)의 훈련을 받았다.

<sup>21</sup> 이문영, 『눈어 맹자와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6, 66.

<sup>22</sup> 이응호, 426.

<sup>23</sup> 이문영, 『인간·종교·국가』, 226f.

법학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안 된 1505년 7월 2일 루터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사건에 접하였다. 루터는 만스펠트에서 에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에어푸르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슈도틴하임(Stotternheim)이라는 마을 부근에서 갑자기 큰 벼락을 만난 것이다. 벼개가 그의 바로 옆에서 번쩍이며 땅에 떨어지고, 그는 기압에 의해 땅으로 내동댕이치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성 안나(St. Anna)여 도와 주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성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모친으로 당시 산악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광부들의 성인(聖人)이었으며, 루터의 가정에서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이름을 불렀다.

루터는 1505년 7월 17일 에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隱者)수도원에 입문하였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외적인 요인은 물론 벼락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하는 것을 중세인은 가장 두려워했다. 당시 에어푸르트에 만연된 흑사병으로 루터의 주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루터 자신의 몸이 생명에 위태로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루터는 죽음에 대한 위험을 느꼈으며 자신의 구원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루터는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옥감주의의 가르침대로 수도사가 됨으로써 완전의 길을 통해 확고한 구원의 보장을 원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루터를 아버지와 한 마디 상의없이 수도원의 담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에어푸르트에 수많은 수도원이 있었지만 루터가 어거스틴 은자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 수도원이 가장 엄격한 수도원 중의 하나였으며, 이 수도원이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이곳의 공부는 바로 대학교의 공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교회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훌륭히 마친 다음 1505년 9월 초 수도원 입문의 허락(Rezeption)을 받아 가입 선서식(Profes)을 마치고 1년간 수련수도사(Novitiat)로 지내게 되었고, 1507년 4월 에어푸르트에 있는 돔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루터는 사제 서품 이후 신학공부를 하였다. 성직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종교개혁시대부터이다. 루터는 1508년 가을부터 1509년까지 비텐베르크 대학교 문학부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쳤고, 1509년에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

루터의 선생이자 독일 어거스틴 은자수도회 엄격파의 수장있었던 요한네스 폰 슈타우피츠(Johannes von Staupitz, 1468-1524)는 루터가 원하지 않았지만 루터에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도록 추천하였고, 루터는 1512년 10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Doctor theologiae) 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는 후에 루터가 신학적 토론과 논쟁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를 심분 활용케 하는 도구가 되었다. 슈타우피츠가 수도원의 일로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신학 교수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루터는 그의 뒤를 이어 1513년 가을부터 1546년 그가 죽을 때까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쳤다.

#### 3.2 사면부(Indulgentia)에 대한 이해

우리말로는 면죄부로 번역된 라틴어의 ‘인돌겐치아’(indulgentia)는 원래 ‘관용, 부드러운,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사죄’, ‘사면’이라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필자가 면죄부라는 용어보다 사면(赦免)이라고 쓰는 이유는 ‘indulgentia’(indulgence, Ablaß)의 원래의 의미는 죄를 면해 준다는 면죄부(免罪符)보다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사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사면보다는 사면부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사면부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 회개의 실행에 속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회개(Buße)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심령의 일회적인 방향전환(μετάνοια)이었다. 고대 교회에서 소위 ‘죽을 죄’(우상숭배, 간음, 살인)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당했다.<sup>24</sup> 이런 형태의 회개 제도는 6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스페인에서는 반복된 회개에 대해 신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공적인 회개는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sup>25</sup> 그 대신 대 바질리우스(Basilius d. Gr., 329-379)에 의해 헬라의 수도원에서 가르쳐진,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는 ‘개인의 고해’(Privatbeichte)가 나타났다.<sup>26</sup> 이것은 6세기와 7세기에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졌다. 이제 ‘개인 고해’는 더 이상 수도원 생활의 제도가 아닌 신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목회 제도가 되었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회개는 죽을 죄 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에도 해당되었다. 여러 가지 과실에 따른 회개의 종류와 기간이 수록된 6세기에 만들어진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libri poenitentiale)’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회개의 방법으로 금식, 기도, 구제 그리고 격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혹독한 형태로 ‘종신 국외 추방’(peregrinatio perennis)이 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회개는 잠자지 않음, 계속적인 시편 낭독 혹은 이와 유사한 일을 통해 더 짧은 기간의 벌로 대체될 수 있었다. 또한 소위 대속(Redemption)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정해진 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거나 돈을 지불함으로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금식은 시편 50편을 노래한다든지 구제로 대체할 수 있었다.<sup>28</sup>

파울루스(Nikolaus Paulus)<sup>29</sup>와 포쉬만(Bernhard Poschmann)의 자세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면부는 11세기에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1035년의 ‘구제 사면부’(Almosenablaß)와 1095년의

‘십자군 사면부’(Kreuzzugablaß)가 있다.<sup>30</sup> 사면부는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기한적인 벌에 대해 교회로부터 인가받은 확고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술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100 일간의 사면부로 100 일간에 해당되는 벌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연속의 전체 기간(이것은 알 수 없지만)에서 100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 소위 ‘부분 사면부’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로 11세기에 남프랑스에서 교회건축을 위한 사면부가 있다.<sup>31</sup> 반면 ‘완전 사면부’(indulgentia plenaria)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는 제 1차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완전 사면부’를 약속했다. 이 십자군 사면부는 교회가 제정한 모든 벌에 대한 광범위한 대속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죄의 용서받음’(remissio omnium peccatorum)과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한적인 벌이 면제됨을 확실하게 약속했다. 1세기 후인 1187년 교황 그레고르 8세(Gregor VIII.)는 십자군에 참전하지 않더라도 십자군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사면부를 주었다. 이런 경우 회개와 관련된 내용은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었다.<sup>32</sup>

사면부가 교회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13세기부터이다. 1215년 제 4차 Lateran 공의회는 고해(Beichte)를 성례로 결정하였다.<sup>33</sup> 이 공의회는 교회법(Kanon) 21 조는 교인은 정규적으로 1년에 1번은 정해진 신부에게 모든 죄를 참회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개인을 교회제도에 완전히 묶어버렸다. 제 62 조에서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교황 제외)은 정규적인 사면부를 신자들에게 40일 이상 줄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결국 ‘완전 사면부’는 교황만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34</sup>

비로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1225-1274)는 깊이 있고 긍정적인 사면부 교리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명제해설』(Sentenzenkommentar)에서 사면부의 본질, 사면부를 주고받는 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는 교황의 죄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요 8:11)와 사도들의(고후 2:10) 죄 용서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며 사면부의 실행은 우주적인 교회에 무오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파리대학교 교수인 도미니크 수도회의 초기 스콜라 신학자 후고 폰 샤프트 케어(Hugo von St. Cher, 1097-1141)가 전개한 ‘교회의 보화’(thesaurus ecclesiae) 이론을 받아들였다.<sup>35</sup> 13세기에 그의 이론은 사면부의 이론에 결정적인 강화를 가져왔다. 이 이론은 사면부를 주는 것에 대해 교회 전권의 시대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했다. 후고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인들의 잉여 선행과 더불어 보화의 형태로 교회에 위임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들은 수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공로들이

<sup>24</sup> W. v. Loewenich, Martin Luther. Der Mann und das Werk, München, List Verlag, 1982, 104.

<sup>25</sup> Bengt Hägglund, Geschichte der Theologie: ein Abriß, A. O. Schwede (übers.), Güthersloh, Chr. Kaiser, 1983, 120.

<sup>26</sup> B. Moeller,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4. verb. Aufl., 134-35.

<sup>27</sup> Ibid., 135.

<sup>28</sup> Bengt Hägglund, 121.

<sup>29</sup> 참조. Bernd Moeller, “Die letzten Ablaßkampagnen. Luthers Widerspruch gegen Ablaß in seinem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in: Johannes Schilling (Hg.), Die Reformation und das Mittelal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53: 가톨릭 신학자인 Nikolaus Paulus는 3 권으로 된 ‘Geschichte des Ablasses im Mittelalter’를 1922-23년에 발표했다.

<sup>30</sup> Ibid. 54.

<sup>31</sup> W. v. Loewenich, 105.

<sup>32</sup> Gustav Adolf Benrath, Art. “Ablaß”,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TRE), Bd. 1, Berlin, Walter de Gruyter, 1976, 348.

<sup>33</sup> W. v. Loewenich, 104.

<sup>34</sup> B. Moeller, “Die letzten Ablaßkampagnen”, 55.

<sup>35</sup> G. A. Benrath, 349.

하늘에서 온 것을 생소하게 여기게 하고, 현세적이고 법적인 집행에 사용하였다. 이 보화는 특히 교황의 권한 안에 있는 도구가 되었다. 토마스는 사면의 시여에 대한 전권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즉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토마스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사면부의 사용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사면부가 과거에 개 교회에서 개인의 회개와 목회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이제 사면은 모든 교회와 이 교회의 머리인 교황의 과업이 되었다.<sup>36</sup> 교황은 ‘교회의 보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황이 ‘공로의 보화’가 있다면 ‘사면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potestas faciendi indulgentias)를 가진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sup>37</sup> 바로 ‘교회의 보화’가 사면부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것이 교황의 칙서에 나오게 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 1342-1352)가 1343년 공포한 칙서인 ‘우니게니투스’(Unigenitus)이다.<sup>38</sup> 그러나 앞에서 말한 완전 사면부는 교황이 공포했다는 점에서 클레멘스 6세의 칙서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사면부에 대한 새로운 변혁은 교황 식스투스 4세(Sixtus IV., 1471-1484)에 의해 일어났다. 1476년 8월 4일 식스투스 4세는 남 프랑스에 있는 성인들의 주교좌 성당 개축을 위해 ‘살바토르 노스터’(Salvator noster)라는 칙서를 공포했다. 이 칙서에서 식스투스는 사면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까지 효력이 있음을 공포하였다.<sup>39</sup> 이 사면부는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능했다(per modum suffragii). 40 일간의 사면부는 연옥의 벌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면제를 뜻했다. 이것은 과거의 회개규정에 의한 40 일간의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 이 규정이 매우 애매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면부를 사야한다는 충동을 유발시켰다. 이때에 교황의 재정 관리에 있어서 부패가 최고도에 달했다.<sup>40</sup> 사실 죽은 자에 대한 사면은 신학에서 오래 전에 있었다. 이와 함께 병행된 것으로 가장 유사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연미사’(Seelenmesse)이다. 이미 제 1차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은 자신들의 공로를 죽은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sup>41</sup>

### 3.3 교해와 사면부의 관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세 시대부터 공개적인 회개 외에 신부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는 것까지 포함된 교해(Beichte)는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성되었다. ① 심령의 통회(contritio cordis): 죄지은 것을 참회하고 아픈 마음을 갖는 것, ② 입의 고백(confessio oris): 신부 앞에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 ③ 선행의 보속(satisfactio operis): 자신이 지은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선행으로 갚는 것. 선행의 보속으로 회개의 계율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1215년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회개(고해)는 성례(Sakrament)로 승격되면서 신부가 사면하는 말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ego te absolvo). 더 나아가 고해의 첫째와 셋째 부분이 완회되었다. 첫째, 심령의 통회 대신 두려움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부를 통한 성례전적인 특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11세기부터 죄의 용서 이후에 행해지던 선행의 보속이 일시적인 벌들의 면제로 이해되었다.<sup>42</sup> 고해성사에서 신부가 사죄함으로써 죄를 용서 받는다. 즉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벌은 죄의 용서로 면제 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벌들, 즉 기한적인 벌들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사면부에 의해 면제받아야 한다. 병, 전쟁, 기근, 연옥 등은 기한적인 벌에 속한다. 사면부에 의해 사람들은 기한적인 벌들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면죄부), 기한적인 벌을 면제받는 것이다(사면부).

이제 한 장의 사면부는 삶과 죽음의 위급한 순간에 지불할 수 있는 수표의 한 종류가 되었다. 통회와 고해는 행하는 것이 아닌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면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회 재정의 높은 수익성의 원천이 되었다. 사면부의 부과는 교황청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세속의 군주들은 자기들의 영토에서 사면부 판매를 금지할 수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면부는 중세교회의 가장 심한 타락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폐지되었다(sessio XXI). 그러나 이 사면부가 예술과 사회적인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이 사면부의 수입으로 대학을 위한 보조, 엘프(Elb) 교량들의 건설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장식품을 위해 사용했다.<sup>43</sup>

### 3.4 95개 논제가 나오게 된 원인

수도사로서 그리고 세상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루터는 사면부에 대한 논쟁으로 고요한 독방에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sup>44</sup> 사면부에 대한 루터의 논쟁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당시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사면부에 있었다.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1503-1513)는 로마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충당을 채우기 위해 ‘완전 사면부’(Plenarablaß)를 공고하였다.<sup>45</sup> 그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0세(Leo X., 1513-1521)는 이 일을 계승하고 1515년 3월 31일 독일의 敎會州인 마그데부르크(Magdeburg)와 마인츠(Mainz)에 ‘완전 사면부’인 ‘Sancrosancti salvatoris et redemptoris nostri’를 공고하게 하였다. 마인츠 대주교구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였다. 1504년부터 1514년 사이 대주교가 무려

<sup>36</sup> Ibid.

<sup>37</sup> B. Moeller, *ibid.*, 55.

<sup>38</sup> Ibid., 56.

<sup>39</sup> Ibid., 60.

<sup>40</sup>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254-55.

<sup>41</sup> B. Moeller, *ibid.*, 60.

<sup>42</sup> W. v. Loewenich, 104-105.

<sup>43</sup> Ibid., 105-106.

<sup>44</sup> M. Brecht, *Martin Luther: Sein Weg zur Reformation*; 1483-1521,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6, 173.

<sup>45</sup> F. W. Kantzenbach, *Martin Luther und die Anfänge der Reformation*, Güthersloh, Güth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5, 78.

3 번이나 바뀌었다. 이것은 그 만큼 많은 돈이 로마 교황청에 뇌물로 바쳐졌다는 것이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14,000 굴덴(Gulden)<sup>46</sup>이 필요했다. 1514년 알브레히트 폰 마인츠(Albrecht von Mainz, 1490-1545)는 마인츠의 대주교로 선출되었다.<sup>47</sup>

알브레히트는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한 치체로(Johann Cicero)의 아들로 영적인 일에 별로 열심이 없고 영적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중요한 여러 성직에 임명되었다. 19세의 나이로 그는 마인츠에서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원이 되고 1513년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대주교와 할버슈타트(Halberstadt)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베틴가(Wettin)에 속한 작센의 선제후들에게 속해 있었던 주교관구 마그데부르크를 빼앗았다. 그러나 호헨졸렌가(Hohenzollern)인 알브레히트와 그의 형인 브란덴부르크의 요아힘 1세(Joachim I.)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1514년 알브레히트는 대주교구 마인츠를 손에 넣음으로 1518년에는 선제후이며 동시에 추기경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이미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와 할버슈타트의 주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위에 오르는 것이 교회법적으로 위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브레히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특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교황에게 이 대가에 대한 조건으로 뇌물을 주었다. 이 뇌물 외에도 알브레히트는 공식적으로 다른 대주교와 마찬가지로 교황청에 대주교직의 띠를 두르기 위해 돈을 바쳤다. 이 띠는 대주교직을 상징하는 것으로 20,000 굴덴이었다. 알브레히트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은행업자인 푸거가문(die Fugger)이 이 돈을 선불해주었다.<sup>48</sup> 루터는 이와 같은 배경을 1517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sup>49</sup>

교황 레오 10세는 알브레히트에게 1515년 마인츠,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에서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완전 사면부’를 8년간 판매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실제로 ‘완전 사면부’는 교황이 제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죄에 관계하였다. 수도사 서원(청빈, 순결, 복종) 외의 거의 모든 서원은 이 사면부를 사게 됨으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변제할 수 있다. 간음죄와 정당하지 못한 물건을 버는 것까지 포함된 거의 모든 죄가 면제될 수 있었다. 이 사면부를 판매할 동안에는 다른 모든 사면부는 폐지되었다. 이 사면부에 대한 설교 때문에 다른 모든 설교는 중단되어야 했다. 이 사면부에 대한 방해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루터는 1517년 늦은 여름에 이 사면부에 대한 교황의 칙서를 알았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공식적으로 이 사면부의 수익금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을 위해 쓰야 했지만 레오는 낭비벽 때문에 이 돈의 일부를 사사로이 사용하였다(공금횡령). 알브레히트는 사면부 판매의 절반은 바로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푸거가문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알브레히트는 ‘거룩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능숙한 사면부 설교자인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테첼(Johann Tetzel, 대략 1465-1519)을 채용하였다. 테첼은 10년 이상 사면부 설교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사기성이 농후한 말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능력자였다. 이 일로 그는 상당히 돈도 벌었으며 자기 하인에게 상당한 일당을 지불할 능력도 있었다. 라이프치히에 그의 사생아가 둘이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테첼 자신이 개정하여 설교에 사용한 ‘막데부르크 교범’(Magdeburger Instruktion)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 영혼의 구원, 교황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유익을 담고 있었다. 최소한 일주일에 3 번은 ‘완전 사면부’에 대하여 설교해야 했다. 완전 사면부 설교의 내용으로는 ‘완전 사면부 칙서’의 내용, 교황의 권위,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의 필요성을 위해 교황이 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이 사면부를 사는 사람에게 내리는 4 가지 은총이 강조되었다. 첫째,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다. 죄인은 완전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입으며 덧붙여 죄와 연옥의 별도로 사면을 받는다. 이 사면부를 사기 위해 왕과 왕비는 25 굴덴, 대주교, 고관 귀족은 10 굴덴, 일반 성직자, 일반 귀족은 6 굴덴, 시인과 상인은 3 굴덴, 수공업자 1 굴덴, 그 외의 사람 ½굴덴을 지불해야 했다. 빈곤한 사람은 금식과 기도를 해야 했다. 남편을 둔 아내와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특별한 법을 적용시켰다. 둘째, 일생에 두 번, 자신이 가장 원하는 시간과 죽음의 시간에 교황이 정한 죄들로부터 사면을 받는다. 셋째, 사면부를 사는 사람과 이 사람들의 죽은 친척들에게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경건한 행위들과 같은 교회의 모든 선행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 이 은총은 참회 없이 가능하며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의 선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넷째,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을 위해 이 사면부를 사면 교황의 중보 기도에 의해 이 영혼은 죄의 별도로 사면을 받는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중적인 유행어가 나왔다. “돈이 연보함에 떨어져 튀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영혼이 연옥의 불로부터 뛰어 오를 것이다.”<sup>51</sup>

테첼은 1517년 1월 사면부 판매를 위하여 아이스레벤에 왔다. 그러나 작센 선제후(Kurfürst)인 프리드리히 현공(Friedrich d. Weise, 1486-1525)은 테첼이 자기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국민의 돈이 호헨졸렌가로 새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테첼이 국경에서 가까운 위터북(Jüterbog)과 체릅스트(Zerbst)에서 활동할 때 루터에게 고해를 하는 프리드리히의 비텐베르크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사면부를 사왔다. 이들은 사면부를 사가지고 비텐베르크에 와서 시교회(市敎會, Stadtkirche)<sup>52</sup>의 신부인 루터에게 고해 성사를 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이나 아픔도 없이 사면에 대한 선언을 요청했다. 진지한 신부였던 루터에게 있어서 이 일은 충격적이었다.<sup>53</sup> 이런

<sup>46</sup> 1 굴덴은 약 14 달러 정도 된다.

<sup>47</sup> M. Brecht, 176.

<sup>48</sup> W. v. Loewenich, 106.

<sup>49</sup>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113.

<sup>50</sup> M. Brecht, 177.

<sup>51</sup> *Ibid.*, 178-80.

<sup>52</sup> *Ibid.*, 150-51: 이 시교회는 평민들이 다니는 곳으로 루터는 이 교회에서 설교했다.

<sup>53</sup> *Ibid.*, 179-81.

사실에서 볼 때 종교개혁의 시발은 루터가 성서신학 교수로서 신학적인 영역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닌 당시 교회에서 행해지는 회개의 실행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sup>54</sup>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 사면부에 대한 책임이 바로 알브레히트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여 왔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리고 기도로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그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면부의 취소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루터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루터는 알브레히트가 알지 못하는 사면부 설교를 비판하지 않고 이 설교에 나온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sup>55</sup> 루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면부 설교를 근거로 하여 그들이 사면부를 사는 것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된다고 한탄하였다.<sup>56</sup> 루터는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회 특히 감독들의 책임이 중대함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사면부를 설교하라고 명령한 적이 결코 없으며 복음을 설교하라고 하였다.<sup>57</sup> 둘째,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의 문장이 새겨진 사면부 설교자들을 위한 ‘교본’(Instructio summaria)이 알브레히트의 인지와 허가 없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면부를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약속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사면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참회나 고해가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들은 사면부를 사게 되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사면부가 별반만 아니라 죄까지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루터는 이 교본은 곧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up>58</sup> 루터는 이 문제가 결국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사면부의 판매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다. 루터는 교회의 책임 있는 선생으로서(신학박사의 의무)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루터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이었다. 루터의 이러한 회개 이해가 사면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한 것이다.<sup>59</sup>

같은 날 루터는 자기가 속한 교구의 주교인 브란덴부르크의 히에로니무스 슐체(Hieronymus Schulze von Brandenburg)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편지는 보존되지 않았다. 알려지기에는 이 편지에 테첼이 이 교구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60</sup>

루터는 이 편지들 외에 사면부 논쟁을 뜨겁게 불러 일으켰고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城教會)의 문<sup>61</sup>에 1517년 10월 31일<sup>62</sup> 붙였다. 그 당시 성교회의 문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이었다. 이 논제의 제목은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쟁’(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이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이게 된 때, 이미 그는 성서연구를 통하여 구원이 옥감이 가르친 바와 같이 자유의지의 결과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 받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옥감 신학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그러므로 사면부를 사게 되어 얻게 되는 구원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시정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루터의 95개 논제는 사실 신학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었지만, 루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는 행위가 되었다.

## 4. 이문영의 ‘95개조’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는 이문영이 루터의 95개조에 천착한 이유와 그의 저서 『인간·종교·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를 어떻게 행정학과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다루도록 하겠다.

### 4.1 ‘95개조’ 주제와 이문영

일반적으로 루터 신학의 주제를 ‘칭의’라고 한다. 루터는 중세 스콜라 신학, 특히 옥감주의가 주장한 인간의 종교적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루터가 주장한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 신학의 주제가 되었으며,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서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발표한 ‘95개조’의 핵심내용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회개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이며 기독교의 입문이다. 이문영은 소위 모태신앙인인데 모태신앙인이라고 다 회개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시 말하여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은 그의 어렸을 때 회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重生)했다’, 또는 ‘거듭났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 무교동교회에서 윤판석 장로가 어린이 부흥성회에서 설교할 때 장남임을 행세해 동생들 때린 것을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하였다. 이것은 그가 후일에 ‘95개조’의 제 1항에서 회개를 일생의 과업으로 삼으라는 것을 뜻있게 보게 하였다.<sup>63</sup> 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일을 하는 ‘방법’은 신 앞에서 회개하며, 이 마음을 미루어 교회에서는 사체를 존경하며 교회 밖에서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신에게 회개하지 않고 다만 사체에게 굴종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루터는 당시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의 원인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인

<sup>54</sup> Ibid., 173.

<sup>55</sup> Ibid., 187.

<sup>56</sup> Bernhard Lohse, 117.

<sup>57</sup> M. Brecht, 187.

<sup>58</sup> Ibid., 188.

<sup>59</sup> Ibid., 182.

<sup>60</sup> Ibid., 188.

<sup>61</sup> 당시 비텐베르크 城教會의 문은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의 게시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sup>62</sup> 참조. Heinrich Bornkamm, “Thesen und Thesenanschlag Luthers”, in: Geist und Geschichte der Reformation, Festgabe Hanns Rückert zum 65. Geburtstag,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38, Berlin, Walter de Gruyter, 1966, pp. 179-201. W. v. Loewenich, 109-10: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인 것 날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546년에 발행된 라틴어판 루터 작품 제 2권의 머리말에서 멜랑흐톤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63</sup> 이문영, 『겁많은 자의 용기』, 44.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달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행해지던 관행에 따라 행해진 데 있다고 보았다. 마태복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이다. 회개란 일회적인 것으로 자신의 전생애의 방향전환이었으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물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문영은 회개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루터의 95 개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사람의 할 ‘일’이란 하늘나라와 의(義)를 추구하는 것이지, 면죄부의 구입으로 상징되는 ‘이’(利)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함으로 95 개조의 전체적인 사상 맥락과 일치한다.

## 4.2 행정학자로서 ‘95 개조’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이문영은 미국 행정의 전범(典範)을 루터의 95 개조에서 찾는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개신교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의 95 개조>에서 비롯되었는데, 개신교가 그 나라 종교의 주종을 이룬 국가들은 근·현대사에서 민주국가와 민주행정을 형성·유지해왔지만,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가톨릭 교회와 같은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은 권위형 국가와 권위형 행정을 형성·유지해왔다.
2. 이 나라들 중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민주헌법을 만든 나라이다.
3. 미국은 영국 청교도들의 탈영국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청교도들의 신앙전통은 개신교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마르틴 루터의 95 개조>는 그 당시 교회라는 조직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비록 교회라는 조직이 세속의 행정조직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모여서 영위하는 조직생활의 경험인 점에서 같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행정개혁은 그 님은 모양을 쉽게 세속조직에서의 행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sup>64</sup>

이런 관점에서 이문영은 자신의 학문 연구의 대상이며 가치의 대상인 사람, 일, 방법의 관점에서 95 개조를 해석한다. 이문영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중요시하였고, 비폭력과 개인윤리(방법), 사회윤리(일) 그리고 자기희생(사람)의 4 가지 덕목으로 설명하였다.<sup>65</sup> 이문영은 ‘사람을 목적시 하는 측면’은 사람이 신 앞에 선 존재이지, 사제나 교회 앞에서 선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제나 교회 앞에서 사람이 선다는 것은 사람이 목적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나 교회의 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sup>66</sup>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초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루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나 사제가 중재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의 종교개혁 3 대 논문의 하나인 『기독교 구성원의

향상을 위해 독일의 기독교자에게』(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는 이에 대한 확실한 주장으로 베드로전서 2:9 에 의거하여 ‘만인사제직’을 내세웠다. 루터는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제임을 주장하면서,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로부터 죄 용서의 사면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신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문영은 ‘95 개조’ 분석을 신학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학자의 입장에 따라 분석하는데 그 전체의 하나는 95 개조를 분석할 안목이 세속의 행정조직의 개혁을 수행할 세 개의 안목(사람, 일, 방법)과 같은 것과, 또 하나는 95 개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교인의 모습은 교인들이 믿는 예수의 모습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67</sup>

이문영은 세 개의 안목을 Lowenich 의 분류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석한다.<sup>68</sup>

이 세 가지 안목에 따라 이문영은 먼저 예수의 삶의 방법을 요한복음 18:10-11 에 근거하여 비폭력이라고 언급한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잡으러 온 대 사제의 종의 오른 쪽 귀를 칼로 잘라버렸는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비폭력은 예수의 ‘일’관과 ‘사람’관의 전체이기에 비폭력이 모든 덕목의 시작이다. 이문영은 이에 근거하여 예수의 삶의 고유한 방법은 첫째 말로 하는 것, 둘째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합의란 약속의 이행, 상대방의 존중, 예의 등을 근거로 하며, 이문영은 이러한 행동을 개인윤리라고 칭한다.<sup>69</sup>

## 4.3 ‘95 개조’에 나타난 ‘방법’관

그렇다면 ‘95 개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찾아보는 과제가 남았다. ‘95 개조’에서 ‘방법’관을 말하는 것은 제 1-7 조와 제 92-95 조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내용은 예수의 삶의 고유한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의 중심 주제는 회개이며 ‘95 개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핵심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일상생활에서 예수가 보여준 모습으로 환원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문영은 누가복음 3:7-14 에서 요한이 회개할 내용을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6:9-13 의 주기도문에서 찾는다.<sup>70</sup>

먼저, 누가복음 3:7-14 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다. 첫째, 율게 살되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사람의 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존재이다. 둘째, 사람에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의식주가 허용된다. 셋째, 사람에게에는 공권력을 가지 사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sup>71</sup>

이문영은 주기도문도 바로 같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회개해야 할 세 가지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sup>67</sup> Ibid., 254.

<sup>68</sup> Ibid., 259.

<sup>69</sup> Ibid., 260.

<sup>70</sup> Ibid., 261.

<sup>71</sup> Ibid., 262.

<sup>64</sup> 이문영, 『인간·종교·국가』, 241.

<sup>65</sup> Ibid., 239f., 254.

<sup>66</sup> Ibid., 242.

사람의 모습을 부각하는 측면		퇴베니치의 95 개조 분류내용	
		조문	내용
방법		제 1-7 조	회개, 벌과 죄에 대하여, 회개가 무엇임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성례전적인 고해, 또는 보속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 1 조는 회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은 ‘회개하라’(마태오 4:17)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임을 알린다.
		제 92-95 조	면죄부 설교에 대한 경고와 주의. 크리스천은 벌 때문에 도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를 것.
일	내세의 일	제 8-29 조	연옥의 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면죄부에 대하여
	현세의 일	제 30-55 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면죄부에 대하여
사람	사람과 신 사이에 긴 교회	제 56-68 조	교회의 보화에 대하여
	사람과 신 사이에 긴 사제	제 69-80 조	면죄부 설교의 폐해에 대하여
	사람의 당연한 항의	제 81-91 조	면죄부를 반대하는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이의들에 대하여. 자신의 시대의 반교회적인 감정의 지혜롭고 효과적인 수용에 대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복음 6:9-10)에서 나타난 기도의 요지는 사람이 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상급자로 아버지를 제시한 것이며, 공권력자가 우리의 아버지와 같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다면, 그러한 공권력자를 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이다.<sup>72</sup>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마태복음 6:11): 이 기도는 속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마태복음 6:12-13). 이 기도는 자기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굉장한 선행을 이미 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며, 굉장한 선을 행한다기 보다는 악에서나 구하여지기를 바래야 하는 연약한 사람이다.<sup>73</sup>

이문영은 로마서 1:18-32 에 열거한 인간의 죄도 이 세 가지 면에서 진행되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이지만, 인간은 현실에서 최대의 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다.<sup>74</sup>

이러한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의 원 모습이란 사람에게서 먹을 것이 있어야 하며, 행동 기준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선악이어야 하며, 존경할만한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범한 ‘그냥 사람’이며,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마가복음 14:41)이라고 했다.<sup>75</sup>

이런 평범한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사람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늘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의 목적은 사람의 원 모습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데 있지 않다.<sup>76</sup> 이것이 루터가 터득한 복음이다.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복음에서 발견한 것은 죄를 범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문영은 ‘95 개조’에서 사람이 살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4 가지로 말한다. 첫째, 회개는 신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95 개조의 제 1 조, 2 조, 5 조, 6 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개는 교회의 전승에 따라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고백과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되는 사면(*absolutio*)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제 92-95 조에서 회개하는 사람 앞에 가로 막고 서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는다.<sup>77</sup>

둘째, 회개는 일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회개이다(제 4 조). 십계명과 주기도문 또한 “매일 매일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이와 상통한다. 매일 회개를 하면서 살다보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40)는 좀 더 높은 교훈 앞에 회개를 하게 된다.<sup>78</sup>

셋째, 회개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회개는 내적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억제되지 않아, 정욕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제 3 조).<sup>79</sup>

넷째, 회개가 외부로 표현된 사람은 사제를 존경하며 교회 밖에서는 이웃에게 봉사한다.<sup>80</sup>

#### 4.4 ‘95 개조’의 ‘일’관

‘95 개조’에 나타난 일관은 제 8-29 조가 말하는 내세의 일관으로 연옥의 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sup>72</sup> Ibid.

<sup>73</sup> Ibid., 263.

<sup>74</sup> Ibid.

<sup>75</sup> Ibid., 264.

<sup>76</sup> Ibid.

<sup>77</sup> Ibid., 264f.

<sup>78</sup> Ibid., 265f.

<sup>79</sup> Ibid.,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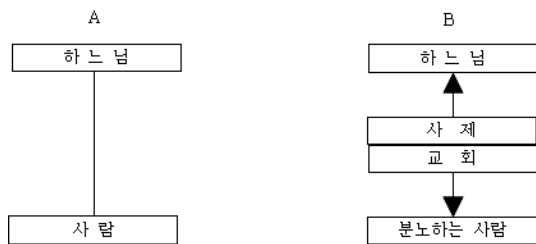
<sup>80</sup> Ibid.

사면부(면죄부)에 대하여와, 제 30-55 조가 말하는 현세의 일관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사면부(면죄부)에 대한 것이다. ‘일’관 또한 비폭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81</sup>

‘일’관에 관한 전체 48 개 조항은 사람이 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나뉜다. 사람이 안 해야 할 일은 사면부(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제 42 조). 특히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문영은 12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심 내용은 하늘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형벌을 달게 받음으로 회개하고(제 40 조), 선행을 행하고(제 41 조), 자선사업을 하고(제 42 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제 43 조),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저축하고(제 46 조), 사면부(면죄부) 구입이 자유의사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가르치고(제 47 조),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제 48 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제 49 조), 성 베드로 성당을 신도들의 희생으로 짓는 것보다 불태워버리고(제 50 조), 사면부(면죄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제 51 조), 사면부(면죄부) 설교자는 그리스도와 교황의 적이며(제 53 조), 복음의 가치가 사면부(면죄부)의 가치보다 크다(제 55 조).<sup>82</sup>

#### 4.5 ‘95 개조’의 ‘사람’관

이문영은 ‘95 개조’가 말하는 ‘사람’관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A 는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의 사람이다. 그림 A 에는 위와 아래를 이은 세로 줄에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만 어떤 수식어도 없다. 그림 B 는 잘못된 상태인데 사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교회가 중간에 있다. 이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다.<sup>83</sup> 루터가 95 개조에서 묘사한 사람의 그림도 B 이다. 사제는 사면부(면죄부)를 설교하는 사제로 제 69-80 조에 해당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공로로 여겼던 사면부(면죄부)의 보고를 가진 당시의 가톨릭 교회로 제 56-68 조에 해당된다. 분노하는 사람은 제 81-91 조에 해당한다.<sup>84</sup>

이문영은 여기에도 루터가 비폭력을 상하간에 존재해야 가치로 확신한다고 본다. 사도적 용서를 행하는 감독들과 교구 교사들은 전적으로 존경받아야 하고(제 69 조), 이에 반하여 말하는 자는 추방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제 71 조). 이들은 사면부(면죄부)를

설교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다.<sup>85</sup>

교회에 쌓여 있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가 사면부(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신자들이 죄의 용서와 벌을 면제받는다 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보화가 아니라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참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제 62 조).<sup>86</sup>

이문영은 위와 같은 사제와 교회의 악에 대하여 교인들이 분노하는 것을 루터가 당연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다. 루터가 말하는 ‘사람’관은 신 앞에 서는 존재이지, 사제나 교회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다.

이문영은 루터의 95 개조에 나타난 세 가지 행동을 행정조직의 상황과 다음과 같이 대비해본다.<sup>87</sup>

95 개조의 상황	행정조직의 상황
사람	공무원
신	전문지식
교회	조직
사제	상사
교회 밖에 있는 이웃	조직 밖에 있는 국민
나라와 의(義)	민주·복지국가와 정의
면죄부의 구입	상사에의 상납

이문영은 ‘95 개조’를 근거로 하여 행정조직에 속한 공무원의 세 개의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sup>88</sup>

- i)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법’은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을 매일매일 닦아서, 이 학문을 갖고서 조직 내에서는 상사를 존중하며 조직 밖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전문지식을 연마하지 않고 다만 상사에게 굴종하며 조직 밖의 국민들에게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다.
- ii) 공무원이 할 ‘일’이란 민주·복지국가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상사에게 상납하는 대가로서 이(利)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 iii) 공무원인 ‘사람’이란 전문지식(능력과 민주주의 이념 포함) 앞에 서는 존귀한 존재이지, 상사와 조직 앞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 5. 결론

이문영은 자신의 어릴 때 기독교와 만남을 통하여 결심한 것인 공부를 열심히 하되, 기독교의 틀 안에서 나라를 위하여 공부를 하자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 그가 또 하나 기독교를 통해 경험한 것은 주일학교 학생일 때 아동부흥회 시간에 자기가 가정에서 동생들에게 횡포를 부린 것을 뉘우치며 많이 운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행위이다. 이문영의 생애는 이러한 삶이 어느 한 순간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있다. 이것은 이문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학에 루터의 95 개조를 연결시켜주었다. 루터의 95 개조는

<sup>81</sup> Ibid., 267.

<sup>82</sup> Ibid., 269f.

<sup>83</sup> Ibid., 271: 원문에는 A 밑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B 밑에 사람이 있는데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고친다.

<sup>84</sup> Ibid., 272.

<sup>85</sup> Ibid.

<sup>86</sup> Ibid., 273.

<sup>87</sup> Ibid., 276.

<sup>88</sup> Ibid., 277.

루터의 중심신학인 ‘칭의’가 아니며, 회개이다. 이문영에게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최소한의 행위였으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행위가 3 가지 영역(방법, 일, 사람)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행정학의 구조는 3 가지 영역에 대한 탐구였다. 이러한 탐구는 오늘 행정학 뿐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를 개혁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병든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처방전이 되리라 본다.

## 6. 참고문헌

- 고춘섭 편저, 『연동교회 90 년사』, 1984.
- 김문기, 『중앙교회 90 년사』 서울: 도서출판 청과, 1998.
- 박용석, “청교도의 삶을 실천한 신여성 서용란”, 『성결교회인물전』 제 10 집, 서울: 도서출판 두루, 2006.
- 이문영, 『겁 많은 자의 용기: 지켜야 할 최소에 관한 이야기』, 서울: 나남출판, 2008.
- , 『논어 맹자와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6.
- , 『인간·종교·국가』, 서울: 나남출판, 2001.
- 이응호, 『한국성결교회사』 제 2 권, 서울: 성결문화사, 1994.
- 『활천』 (1930 년 4 월).
- Benrath, Gustav Adolf, Art. “Ablaß”,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TRE), Bd. 1, Berlin, Walter de Gruyter, 1976.
- Bornkamm, Heinrich, “Thesen und Thesenanschlag Luthers”, in: Geist und Geschichte der Reformation, Festgabe Hanns Rückert zum 65. Geburtstag,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38, Berlin, Walter de Gruyter, 1966.
- Moeller, Bernd,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4.verb. Aufl. 1987.
- “Die letzten Ablaßkampagnen Luthers Widerspruch gegen den Ablaß in seinem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in: Johannes Schilling (hg.), Die Reformation und das Mittelal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 Brecht, Martin, Martin Luther: Sein Weg zur Reformation; 1483-1521,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6.
- Hägglund, Bengt, Geschichte der Theologie: ein Abriß, A. O. Schwede (übers.), Güthersloh, Chr. Kaiser, 1983.
- Kantzenbach, Friedrich Wilhelm, Martin Luther und die Anfänge der Reformation, Güthersloh, Güth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5.
- Loewenich, Walter von, Martin Luther. Der Mann und das Werk, München, List Verlag, 1982.
- Lohse, Bernhard,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